## 전남 통합거론 지자체 단체장 입장

전남에서 통합이 거론되고 있는 지역의 단체장들은 '행정구역 통합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고 지역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데에 원칙적으로 찬성했지만, 구체적인 통합의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해서는 적지않은 이견을 나타냈다. 일부 단체장들은 통합논의에 앞장설 뜻을 밝히기도 했지만,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지역의 단체장들은 행정구역 통합에 분명한 거부의사를 밝히기도 해 앞으로의 자율통합과정이 난항을 겪을 것임을 예고했다.

# "경쟁력 높일 호기… 지역민 의견 충분한 반영을"

■ 광양만권(여수·순천·광양)

### "박람회 개최 경제·문화 성과 골고루 확산"

#### 오현섭 여수시장

여수와 순천, 광양 3개 시의 통합이 성사된다면 2012여수세계박람회 성공개최의 가능성을 높이고, 성공개최에 따른 경제·사회·문화적 성과가 지역 전체로 확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가 제공하기로 약속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확보함으로써 지역 경쟁력을 단숨에 끌어올리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통합의 이점을 최대한 살려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광양에도 통합의 이점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림으로써 (광양이) 통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필요하다면 좀더 장기적으로, 통합의 이점이 있다는 사실을 광양과 순천을 비롯한 3개 시가 공동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구도를 맞춰 가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 "광양 반대땐 구례 등과 통합 방안도 검토"

#### 노관규 순천시장

통합에 적극 찬성한다. 3개 시가 통합하면 지금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다. 중복투자를 없앰으로써 절약되는 예산과 중앙정부의 인센티브도 주민에게 돌아간다. 3개 시가 합치면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또 전 세계적으로도 손에 꼽을 수 있는 강력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지금 체제가 계속된다면 정치인들 자리만 채워줄 뿐 결국 지역에 돌아가는 것이 없다. 경쟁력이 없다는 얘기다. 앞으로 3개 시 통합에 적극 나서겠다. 광양이 반대한다면 먼저 여수와 순천, 구례, 고흥으로 묶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통합에 반대하는) 광양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지도층이 넓게 봐야 한다. 통합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 "남해·하동까지 아우르는 대통합 돼야"

#### 이성웅 광양시장

분명히 말하자면, 광양만권 도시통합은 광양, 순천, 여수, 남해, 하동 등 광양만권 전체를 아우르는 대통합이 돼야 한다. 어떤 형태로든 특별법이 제정된 후에 시민과 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해야 한다.

광양만권 대통합이 아닌 광양, 여수, 순천 3개 시만의 통합에는 이미 반대입장을 밝힌 바 있다.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에 의하면 현 단계에서는 시·도의 경계를 벗어난 자치단체끼리는 통합을 추진할 수 없다는 방침이 확인되었으므로 당장 남해, 하동을 포함한 대통합은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광양, 여수, 순천 3개 시만의 통합에 대해 나설 의향이 없다. 향후 정부와 국회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특별법 제정 추이를 지켜보면서 범광양만권 대통합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 무안반도(목포·신안·무안)

### "무안기업도시·무안공항 시너지 효과"

#### 정종득 목포시장

무안반도 통합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도 행정구역 체제는 옛날 그대로다. 이 때문에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고, 행정적·경제적 낭비도 크다. 따라서 행정구역 개편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안의 경우 혐오시설 등이 무안으로 옮겨올 거라는 부정적 시각 때문에 많은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렇지만, 쓰레기장·화장장 등 각종 혐오시설은 이미 모두 목포시에 만들어졌다. 정부의 자율통합에 따른 지원 예산도 무안과 신안에 사용되게 될 것이다. 통합 신청사도 무안읍으로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특히 무안 반도가 통합되면 무안군이 추진하고 있는 무안기업도시와 현재 활성화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무안국제공항에도 큰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신안, 소외 막을 법률·제도적 장치 마련"

#### 박우량 신안군수

장기적으로 볼 때 통합이 그리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신안의 경우 낙후된데다 섬이 많은 특수지역이어서 소외받지 않도록 법률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 무엇보다 주민들의 의견이 우선이다. 군민에게 무엇이 이익이고 손해인지 잘 따져보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판단할 것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전에 '나쁠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좋을 게 없다'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주민들이 반대하면 통합은 못한다. 최근 무안반도 통합이 다시 불붙고 있지만, 목포시 등으로부터 통합 제의를 받아본 적이 없다. 목포시가 반대가 심한 무안지역에만 신경을 쏟고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신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

### "목포에 흡수돼 무안 사라진다"

#### 무안군민들 통합 반대 여론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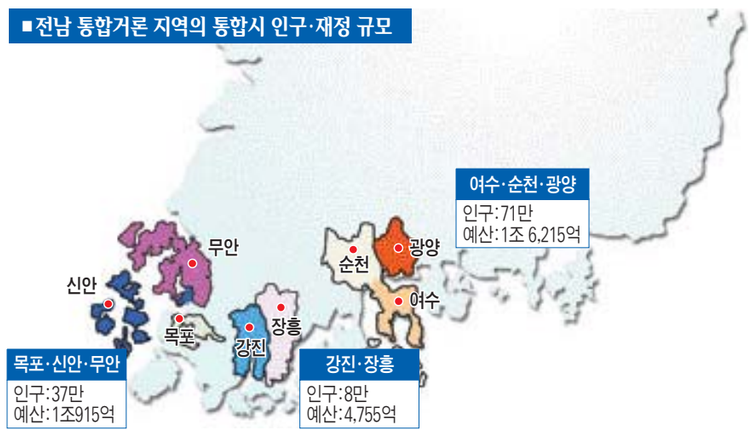
서삼석 무안군수는 9일 서울에서 열린 무안기업도시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바람에 인터뷰는 성사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무안반도 통합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무안군민들의 반대 여론이 더욱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인센티브를 내놓는 등 강력한 유인책을 쏟고 있지만, 무안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좀처럼 잠재워지지 않고 있다.

통합에 반대하는 지역사회단체들이 '무안사랑포럼'이란 연합단체까지 결성해 지역 여론을 이끌고 있다.

이들은 무안반도가 통합될 경우 무안이 목포에 흡수돼 사라지고 도시지역의 혐오시설만 무안으로 넘어올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전남 통합거론 지역의 통합시 인구·재정 규모




■ 강진·장흥

### "정부 강압에 의한 통합은 실패 가능성"

#### 황주홍 강진군수

기본적으로 통합에 찬성한다. 강진과 장흥은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고, 탐진강을 끼고 있어 문화적으로도 가깝다. 따라서 부정적인 지역감정이 없고 양 지역민 모두 우호적이다. 그래서 두 지역의 통합이 적합하다고 본다.

두 지역의 통합 논의는 인위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자연 발생적으로 오래전부터 나온 이야기다.

하지만, 지역 통합은 단체장의 의지나 중앙정부의 강제로 의해 이뤄져서는 안된다. 행정구역 통합은 헌법개정보다 민감한 일이고, 해당지역의 주민이 반발한다면 통합이 어렵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시간표에 맞춰 일을 추진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일이다.

지역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설명회·공청회 등 여러 가지 노력들이 선행돼야 한다. 여론이 충분히 숙성하고, 이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 때 통합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 "보성·고흥·완도 포함 득량만권 통합을"

#### 이명흠 장흥군수

행정구역 통합에 반대한다. 현재 중앙정부가 행정구역 통·폐합을 하려는 것은 교부세를 줄이기 위한 의도다. 현실성이 없고, 외국의 경우도 실패한 사례가 많다.

특히 강진·장흥군 통합은 소 지역적인 통합이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다. 2개 군을 통합한다고 해도 규모가 적어 경쟁력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강진, 장흥 통합보다는 보성과 고흥, 완도를 포함한 득량만권 지역을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개 지역이 모두 바다를 끼고 있어 해양권역을 통합하면 경쟁력도 생길 것이다.

/홍행기·최권일기자 redplane@kwangju.co.kr